

피디수첩, 그리고 교사란 사람 '들'이 하는 일

교육의향



조재호
무등초 교사

11월 5일, MBC PD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를 보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는 교장에게 민원을 넣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발급해주잖아요. 그게 불편하면 다른 직업을 찾으면 되죠"라고. 교사 개인이 쓴 누가기록-일기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정 소수가 학급, 학교, 교육청마저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물론 이런 악성 민원인은 아주 일부입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교사를 적으로 삼고, 사사건건 고소, 고발을 하지 않지요. 아이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시대'에는 2013년 무렵부터 '아동기의 대재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는 '불안'한 세대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혹시 비슷하게 학부모 세대도 달라진 것은 아닐까요?

학교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기관이고, 권위주의적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감사하고 '민원'으로써, 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적 학부모의 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부모님들, 학교는 즉각 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기 위해 시간과 영혼이 필요한 기관입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중학교 교사의 잘나 같은 교육경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이 글을 씁니다.

S교사는 경력 25년차. 수업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A란 도움반 학생이 수업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기

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되었던 교사가 창밖을 보니, A가 빼꼼히 교실을 들여다봅니다. 난처한 표정을 알아챈 B(반장)와 C(친구)가 바로 A를 살피더니 급히 교실을 나갑니다. 실은 A가 일을 본 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었고 물이 화장실 바닥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B와 C는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급히 화장실로 갔고, 심각해진 상황을 본 후, 교실로 돌아와 마스크를 챙깁니다. 중2답지 않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침착하게 "남자화장실이니 우리가 처리할게요"라고 교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우웬, 우웬'입니다. 반 아이들도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이들은 키득키득 웃지만 B와 C를 응원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잠시 후 남교사인 담임이 와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이날 벌어진 일의 전부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죠?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S교사는 왜 그렇게 '감동'을 했을까요? 행복 호르몬이라는 도파민이 줄줄 분비된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어. 그런데 자세히 들여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교사는 A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면, 이를 청해야 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도움반 아이라서가 아니라, 평범한 모든 이들도 남에게 부탁하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치스러운 상황(변기 막힘)에서 그냥 몰래 나오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A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신뢰했습니다. A가 자기 학급 아이들과 교사들을 믿었기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교사는 보았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자기 집단을 믿고 무엇인가를 부탁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험들이 축적되었는지, 그 시간과 경험의 무게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리더인 B와 C는 책임지는 든든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나머지 아이들도 A가 당황하지 않도록 집단적인 배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들도 기꺼

이 B와 C가 될 수 있을 듯 행동했습니다.

S교사는 이 사건을 25년 공교육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잠을 설쳤다는 S교사의 말에 동료들은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사정을 듣고는 모두 공감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교사가 각기 다른 이유로 이 잘나 같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지요. 약자는 도움을 청하고, 리더는 책임감 있게 굿은일을 하고, 다수는 이를 지지합니다. A가 연젠가는 B, C처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도왔던 B와 C에게도 멋진 성장의 경험입니다. 이런 일은 한 두사람의 뛰어난 '교사'들의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수많은 '교사단'들과 함께 나눈 '경험'들의 결과입니다. 현재의 교사뿐 아니라, 과거,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모든 교사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꾸준히 보여준 '노력'들이 잘나 같은 교육적 순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S교사는 가슴 벅차도록 참 감동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나도 과거, 현재, 미래로 연대된 '교사'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풍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 같은 순간이 민원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는 등분을 떼고 '민원'을 넣고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는 미래세대를 더 멋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교사란 '어른' 집단이 그들의 영혼을 집단적으로 갈아 넣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집단을 신뢰하여 도움을 청하고, 리더는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구성원들은 이를 지지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키워내는 것에는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교사를 싸워 이겨야 할 적군으로 여겨져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관행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서석대



KFC(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매장의 간판 그림에서 산타클로스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머금고 있는 할아버지의 간판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70여년 전 KFC를 창업한 커널 할랜드 샌더스의 모습이다.

1952년 당시 60대 노인이었던 샌더스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첫번째 KFC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며 치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11가지 허브 비밀 양념'을 무기로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치킨 조리법을 팔아보려고 했지만 1009번이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샌더스의 치킨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 그 맛에 매료됐고 그의 치킨은 날개 돌진 듯 팔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KFC는 현재도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 매장을 두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고, 샌더스는 KFC하면 떠오르는 친근한 마스코트로 사랑 받고 있다.

미국인들이 샌더스에게 '패스트푸드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고 오늘날까지 사랑과 존경을 보이는 이유는 전 세계에 미국의 음식을 전파한 사업가라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66세라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기어이 성공시킨 불굴의 의지를 높이 사기 때문이다.

프로축구 광주FC 골키퍼 김경민(33)도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해 늦은 나이에 성공을 일군 '인생역전'의 대표적

인 사례로, 광주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경민은 과거 연명별 대표팀 시절 1991년생 동갑내기 조현우(울산 HD), 노동건(수원FC), 양한빈(세레소 오사카) 등과 함께 전도유망한 골키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14년 제주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뒤 줄곧 벤치를 달구기만 했다. 2019년 상근예비역 입대 전까지 프로 5시즌 동안 35경기 출전에 그치는 평범한 선수였다.

2022년 광주FC 이적은 그에게 전환점이 됐다. 지난 3시즌 동안 94경기(94실점)에 나서 광주의 골문을 든든히 지켰다. 2022년 K리그2 베스트11 골키퍼 부문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K리그1 베스트11 골키퍼 부문 후보로

선정돼 조현우와 끝까지 수상을 다했다.

올해는 K리그1 클린리스트 전체 4위(7회)를 기록 중이고 광주FC의 구단 창단 후 첫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에서 4경기 모두 주전 골키퍼로 출전해 맹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지난 4일 K리그1 정상급 골키퍼로 우뚝 선 기량을 인정받으며 늦은 나이에 생애 첫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5, 6차전에 출전하게 됐다.

우리 모두도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이겨내고 실력을 쌓는다면 샌더스와 김경민처럼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社說

차별화된 전략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광주시 정부지원 3대특구 선정

광주시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에 잇따라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특구'는 지역의 미래 산업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특구' 지정이 끝은 아니다. '특구' 활성화를 주도하려는 광주시의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때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 살리기 정책으로 추진하는 4대 특구에 기초자치단체 대상인 '문화특구'를 제외하고 교육·기회발전·도심융합특구에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회발전특구 또한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으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도심융합특구도 도심 인프라를 활용해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지난해 확정된 4대 특구는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성장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골자다. 당장 기회발전특구는 세계 등 각종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광주에는 단비다. 도심융합특구도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복합거점으로 지역에 맞는 기본방향과 산업 육성방안 등을 지자체가 직접 설계한다는 의미에서 성공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교육발전특구 또한 양질의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어 기대가 높다.

남은 과제는 광주시민의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추진이다. 이번에 지정된 3대 특구의 가치는 지역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설계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특구 지정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성장동력인 기업의 유치부터 체계적인 인재양성과 구성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미래에 대비한 획기적인 교통서비스도 고민해야 한다. 장기정 광주시장의 언급처럼 '특구는 광주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다.

구시청 상권 끝없는 쇠락 손바선 안돼

충장축제 등과 연계 시급해

광주 동구 구시청 사거리(현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상권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집 건너 하나씩 공실이 이어지고 있고 상권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전무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주 소비층인 2030세대의 발길이 끊기면서 구시청 일대는 유명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구시청 일대를 돌아본 결과, 가게가 한 집 건너 줄줄이 폐업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광주폴리 '열린공간'이 있는 사거리 주변 점포에도 '임대' 문구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건물 하나를 통째 임대로 내놓고 있는 곳도 부지기수였다. 예전 같으면 새벽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아 24시간 불을 밝히던 식당도 이제는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완전히 문을 닫았다.

구시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예산도 태부족이다. 동구는 지난 2014년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및 구시청 사거리를 '아시아음식문화거리'로 지

정, '청년 창업지원', '나이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기대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정체된 상태로, 올해 '아시아음식문화거리' 관련 주요 추진사업은 '음식공방(쿠��클래스)', '빛의 거리 조성', '도로 정비' 등 총 3건이 전부였다. 일부 사업은 올해는 재정 문제로 지방비 예산을 매칭 받지 못해 관련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인근 충장로 일대와 비교하면 구시청 일대의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부족하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충장로 일대에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충장축제'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상권 회복을 위한 활성화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소한 충장로에서 진행되는 활성화 정책이 구시청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달 개최된 충장축제 당시 많은 인파가 몰려와 지켜보는 구시청 상인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행사나 축제 같은 단발성 사업이 상권 회복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렵지만 구시청 입장에선 이마저도 아쉬운 상황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